

해외에 소개되는 한국 전통음악

유네스코韓委, 영문판 시리즈 6권째 펴내

우리의 고유한 음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작업이 소리없이 이뤄지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조성옥)에서 '국제간의 知的 협력을 위한 문화활동'의 하나로 발간하고 있는 「한국전통음악」영문판 시리즈가 최근 6권까지 나와 조용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시리즈는 우리의 문화전통을 해외에 단순히 '알린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전통음악연구의 디딤돌 구실을 한다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백승철 문화부장은 "한국문화유산의 일부인 전통음악을 외국인에게 체계적으로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발간의 의의를 밝힌다.

"음악은 한 나라의 민족정서를 가장 민감하게 표현해주는 장르입니다. 추상적인 음악의 개념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자연스런 감정까지 표출돼 있으니깐요. 지금까지 우리 음악에 대한 연구번역서도 크게 부족한 상태였고, 기존의 저서도 피상적인 내용소개에 그친 것들이라 국악관련 연구서의 영문판 발간은 필연적인 과제였다고 볼 수 있죠."

「한국음악에 외국인들 큰 감흥 느껴」

음악에 대한 15세기 기록문헌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기 때문에, 한국음악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영국의 더럼대학교(University of Durham)의 경우, 한국음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꽤 여럿 되어 이번 시리즈 가운데 3권을 저술하기도 했다.

「한국전통음악」영문판의 첫권으로 1981년에 선보인 책은 「Source Readings in Korean Music」(한국음악자료집, 송방송 지음).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악연구에 긴요한 문헌자료를 원전 중심으로 엮은 책으로 악기에 관한 신화와 전설, 악기, 악보,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원 일지 등 11가지 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모았다.

5년의 공백기간을 두고 나온 「The Sanjo Tradition of Korean Komungo Music」(한국 거문고산조의 전통, 송방송, 정음사, 86)은 거문고산조에 관한 저자의 학위논문을 펴낸 것이다. 저자는 이 영문판의 의미를 "산조는 한국전통음악 중에서 서양인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장르다. 선율의 다양함과 정교함, 절제된 표현, 그리고 연주할 때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즉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고 머리글에서 밝혔다.



같은 해 잇따라 발간된 「Korean Music : Its History and its performances」(한국음악 : 그 역사와 실제연구, 정음사)는 한국음악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던 키스 프래트교수(더럼대 아시아학)에 의해 저술됐다. 이 책은 저자가 밝혔던 한국음악에 대한 전문연구서가 아니라 '한 서양인이 동양의 한 전통음악에서 받은 감흥을 시각적인 사진자료로 표현'한 책이다.

시리즈의 넷째권으로 나온 「Buddhist Music of Korea」(한국불교음악, 정음사, 87)은 범패의 배경과 헛소리·깃소리에 관한 이병원교수(하와이대 음악학)의 학위논문. 저자는 불교음악에서 한국음악의 뿌리를 찾으려는 독특한 시도를 전개하면서 「梵唄」라는 길고 장엄한 송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아악의 초기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로버트 프로바인교수(더럼대 음악학)의 「Essays on Sino-Korean Musicology」(한·중음악학시론, 일지사, 88)은 한국문헌과 중국문헌을 동시에 고찰한 문헌학적 비판서. 첫 한국여행 때 전통음악의 소리에 매혹됐다는 저자가 아악의 음악적인 뿌리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학계에서도 평가받고 있다.

올초에 나온 「Bands, Songs, and Shamanistic Rituals」(풍물패, 노래, 그리고 주술의식)는 역시 더럼대학에 있는 케이즈 하워드교수가 진도의 셋김굿을 현지조사하여 저술한 민속음악연구서이다. 저자는 서민들의 생활 속에 깃든 살아있는 민속음악을 찾아 82년부터 3년 가까이 진도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모은 끝에, 200시간 분량의 인터뷰기록과 80시간짜리 연주녹음테이프를 완성했다고 한다.

「古기보법」 판소리 연구서도 보충할 계획

이처럼 꾸준히 계속된 발간작업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는 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허권과장(문화부)의 말이다. "두세번씩 인쇄

를 다시 하는 시행착오도 겪었다. 영문판이라고 정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한자투성이의 원전을 옮기는 일도 까다로워 제작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는 것. 또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일이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李惠求박사를 비롯한 국악계 원로들로 이뤄진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가장 큰 과제는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었는데,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국제문화진흥기금'으로부터 2만불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과 국내 출판사·문화기관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8년에 걸쳐 발간된 이들 6권의 책은 전통음악의 피상적인 내용소개가 아닌 본격 전문연구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주로 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용되는데, 우리나라 음악을 공부하기 위한 '1차 자료'로서 충실한 교재역할을 하고 있는 셈. 여기에 우리나라 옛 악보의 종류와 특성을 살핀 「古기보법」(權五聖, 250면 예정)이 완성되고 「판소리」에 관한 연구서가 보충되고 나면, 「한국전통음악」영문판 시리즈는 일단 뼈대를 갖춰 마감하게 된다. 앞으로 이 시리즈는 동양음악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독특한 전통'을 간직한 한국음악의 '진수'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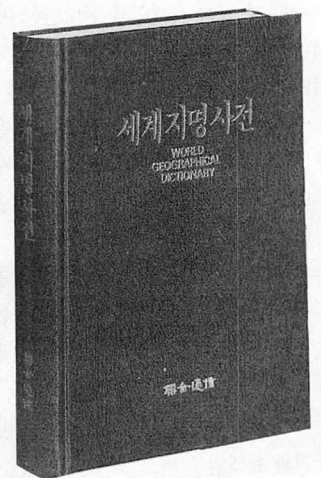
화제의 책

국내 최초의 단행본 지명사전 연합통신사 엮음 「세계지명사전」

각종 교과서 및 신문에 나오는 지명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지명을 총 망라한 「세계지명사전」이 국내 최초로 발간돼, 마땅한 것이 없어 외국의 지명사전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불편을 덜게 됐다.

88년판 「聯合年鑑」의 별책으로 간행됐던 것을 대폭 수정, 증보하여 단행본으로 펴낸 이 책에 수록된 지명은 표제어로는 1만4천여, 항목수로는 1만7천여개에 이른다. 국내의 교과서와 국어연구소의 「외래어표기용례집」을 지명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미국의 「웹스터지명사전」 및 일본三省堂판 「세계지명사전」 최신판도 참조하여 올림말을 골라냈다.

표제어의 배열 및 표기는 올초부터 시행된 새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을 따르되, 중국의 지명만은 찾아보기 쉽도록 우리식 漢字音을 표제어로 삼고 原音은 발음해설란에 표시했다. 아울러 권말에 「로마자字의 한글 찾아보기」와 「中國音의 한글·漢字 찾아보기」를 따로 첨부, 원음이나 철자만 알려도



해당 지명해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지명 해설에서는 해당 지명과 관련된 역사·지리·문화·언어는 물론, 최근에 일어났던 주요사건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이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세계지명사전」은 단순한 지명의 나열과 모음이 그치지 않는, 그 지명으로 표현된 세계와 세계 속의 인간의 삶을 기술한 책일 수 있다.

연합통신사 / A5신 / 700면 / 18000원